

2) 면청년회와 노동청년회의 결성

1923년 2월 1일 쌍암면 신성리에서 쌍암청년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1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다. 총회는 조광현(趙光鉉)의 사회 아래 조윤식(趙允植)의 취지 설명, 손기홍(孫基弘)의 규칙초안 낭독, 규칙 통과와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원 선거에서는 회장 조광현, 부회장 장기언(張基彦), 총무 조윤식, 회계 손기홍, 서기 조형식(趙炯植) 등이 선출되었다. 창립총회를 이끌어가고 주요 간부로 선출된 이들은 청년회를 발기한 '쌍암면 유지'로 여겨진다. 이 점은 이들 대부분이 바로 민립대학기성회 순천지방부의 쌍암면 집행위원인 데서도 드러난다.(조광현·장기언·조윤식)

1923년 4월 22일에는 동초면 유지의 발기로 동초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창립총회는 동초면 구룡리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 출석한 회원 가운데 47명이 단발을 행했다고 전해지는데 상당한 '신식물'이 든 사람들이 청년회로 결집했음을 보여준다. 당일 선출된 간부진은 회장 한상준(韓相俊), 부회장 최병주(崔炳周), 총무 변상희(卞相希), 고문 김재창(金再昌)·한상헌(韓相獻)·한응수(韓應洙) 등이었다. 한상준은 향교 장의였으며, 김재창은 낙안면 등지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1926년 동초청년회에 400원을 기부할 정도의 자산 소유자였다. 이무렵 도사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에서도 이미 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서면 청년회의 경우 순천군 농민운동 지도자인 박병두, 김기수가 청년회 부회장 및 총무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1월 서면청년회의 간부진은 허준(許竣 : 집행위원장)·최정순(崔正恂)·김용직(金容直)·김기영(金基泳)·임양모(林洋模)·조창섭(趙昌燮)·김형진(金炯珍)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기영은 김기수의 친형으로서 1923년 초 이래 서면농민대회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김용직은 1926년 1월 서면산업조합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허준은 1928년 무렵 서면 면장을 지내는 유지였다.

황전면청년회는 1924년 1월 2일 박창서(朴彰緒)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간부진은 회장 박창서, 부회장 조봉모(趙奉模), 의사부장 유계호(劉桂鎬), 총무 조찬호(趙燦皓), 4부 서기 2명, 회계 2명 등이었다. 박창서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은 토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청년지주로서 이제 막 동경 유학에서 돌아온 젊은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봉모는 소작농민으로서 유계호와 함께 황전면농민대회의 열성적인 활동가였으며, 이무렵 사위까지 본 장년이였다.

이와 같이 1923~1924년 각 면에서 결성된 농촌청년회의 지도부는 대체로 유지급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청년이라기보다는 장년층에 속하였다. 박창서와 같은 청년이 지도부로 선출된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였다. 일반 회원의 구성도 청년이라기보다는 장년층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5년 1월 서면청년회 임시총회에서는 25세로 회원 연령을 제한하는 논의가 제기되어 장시간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만일 25세로 연령을 제한한다면 회원의 8할 이상이 퇴회해야 하며, 청년회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이 많아 당분간 40세로 연령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면 단위 청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편 1923년 9월 26일 순천노동회관에서 순천노동청년회가 결성되었다. 노동청년회의 창립 당시 간부진은 회장 조간포(趙看布), 총무 송태섭(宋台燮), 이사 전남두(田南斗)·허영수(許永壽)·박흥춘(朴興春)·오종록(吳鍾祿)·최삼두(崔三斗)·허만년(許萬年)·김경렬(金京烈)·김준근(金俊根) 등이었다. 조간포는 인쇄직공으로서 1925년 9월 2일에 창립된 순천인공조합 간사로 활약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허영수는 목공생활을 하던 중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그

는 1925년 순천노동연합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6년 봄에는 고려공청회에 가입하여 순천야체이카에 배속되었다. 송태섭은 순천노동대회와 순천노동연합회 간부로 활동하였다. 순천노동청년회는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청년을 망라하여 조직되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전국 각지에서 출현한 노동청년회는 노동부문에 산재한 청년을 결속해 노동청년의 의식적 각성과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노동운동의 활동인자를 양성·훈련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었다. 조간포, 송태섭, 허영수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순천노동청년회는 노동운동 부문의 활동가 양성이라는 자기 책무를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면단위 청년회와 노동청년회는 결성 당시에 회장제를 택하였지만 점차 집행위원제로 조직체를 변경하였다. 각 면 농민대회의 경우 1923년 초부터 집행위원제를 채택한 단체도 있으며(서면·순천면농민대회), 회장제를 취한 농민단체는 1924~1925년 사이에 집행위원제로 조직체를 변경하였다.(낙안면·도사면·상사면·쌍암면·송광면·해룡면·황전면농민대회) 이러한 양상은 비단 농민운동 영역에서만 아니라 청년단체에서도 그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면청년회의 경우 1925년 1월 초, 순천노동청년회는 1925년 8월에 이미 집행위원제를 채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앞서 순천청년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면청년회는 1923년 초 토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보기를 들어 쌍암면청년회는 창립총회에서 첫째 금연단주(禁煙斷酒), 둘째 남녀 의복은 목면제 이외에 일절 불허할 것, 셋째 신교육을 주로 하여 음력 정월부터는 학교 외에 자녀의 통학을 금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쌍암면청년회의 핵심 간부는 민립대학기성회 순천지방부의 쌍암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으로 면청년회는 그 지역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다. 1923년 2월 17일 서면청년회는 서면농민대회와 연합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병두가 의장으로서 개회를 선언한 다음 광주소작인회연합회 집행위원 정남근, 순천농민대회연합회 위원 이영민·이창수가 등단하여 '소작인의 정경과 장래 실현', '소작인아 단결하라' 등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첫째 보통학교를 건축하기 위한 분담비는 서면보통학교 기성위원회에 일임하며, 둘째 지주들이 몰래 징수한 세금과 소작권의 무리한 이동에 대해서는 관련 구(區)에서 귀정(歸正)하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농민대회에 통지하며, 셋째 성토기를 준비해 두었다가 후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도사면·별량면·상사면·송광면 청년회관에서는 수시로 농민단체의 강연회, 총회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서면청년회(김기수·김기영·박병두), 쌍암면청년회(조광현), 황전면청년회(유계호·조봉모) 지도부의 상당수는 면농민대회 간부를 겸하고 있었다. 별량면청년회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순천청년회 별량지회의 간부 심의현, 김학련은 1923년 1월 별량면농민대회의 회장과 총무로 선출되었다.¹⁾

면청년회와 노동청년회는 교육사업에 주력하였다. 1923년 4월 별량면청년회는 면내 각 구에서 1명씩 총 10명의 고학생을 선발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보통학교에 못 간 무산청년을 모집하여 노동야학을 시작하였다. 교수 과목은 한글·한문·산술·일어이고 강사는 김응수(金應洙)·송문평(宋文平)·김태진(金泰鎭)이었는데, 수강 인원은 갑반 28명, 을반 36명이었다.

순천노동청년회는 1923년 11월 순천노동대회와 협력하여 순천노동야학회를 조직하고 야학을 시작하였다. 교수과목은 한글·한문·산술·일어였으며, 강사는 김봉수·김익두(金益斗)·남

1) 조찬석, 「1920년대 전라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육대학논문집』21, 1987, 17쪽.

달섭(南達燮)·이영민·장용기(張龍基)·주진군(朱進君)이었다. 순천노동야학회는 회장 이영민, 부회장 손남삼(孫南三), 총무 김봉수, 서기 겸 회계 김익두로 구성되었는데, 야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연극단을 조직하고 순천과 인근 군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서면청년회는 1923년 가을에 조직된 서면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적극 후원하였다. 청년회 간부인 허준, 김기영은 기성회 간부로도 활약하였다. 1925년 1월에는 공립보통학교 기성회 후원을 위한 실행위원으로 허준·임양모·조창섭·김형진을 선정하고, 기성회의 의연금 모집활동을 원조하기 위해 각 동네 출장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1925년 6월 동산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

청년회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송광면 자강회(自強會), 쌍암면 전진회(前進會) 등도 청년들이 주도하여 만든 단체였다. 송광면 자강회는 이규상(李奎祥)이 발기하고 청년들이 적극 호응한 가운데 1923년 11월 1일 송광면 이읍리에서 결성되었다. 송광면 자강회는 강연·교육·사찰·실업·체육·저축·위생의 7부를 설치하였다. 쌍암면 전진회는 1924년 4월 8일 쌍암면의 유평(柳坪)·죽림(竹林)·신학(新鶴)·신성(新星)·남강(南江)의 5구 청년들을 중심으로 농사 장려, 소비 절약, 유랑 방지 등을 표방하면서 결성되었다. 창립 당시 간부진은 회장 최갑록(崔甲錄), 부회장 이재화(李在華), 재무 이기형(李淇滢), 서기 서정수(徐禎洙), 사찰부장 나성채(羅成彩) 등이었다.

면청년회는 문화운동적·개량적 분위기에서 탄생한 만큼 초기에는 개량적인 활동에 주력하였다. 청년회를 주도한 것도 면내 유지층이었다. 그러나 1923년 중하반기 이래 농민운동의 투쟁성·계급성이 강화되면서 자기 결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면청년회의 행로는 다음 두 경우로 분화되었다. 면청년회의 활동이 그다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점, 대개의 면청년회가 전군 차원의 연합운동에 가담치 않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다수의 면청년회는 농민운동과 떨어져 유지들의 간판운동으로 유지되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으로 농민운동과 적극 결합해가면서 투쟁성, 계급성을 강화해간 청년회도 있었다. 특히 서면청년회의 경우가 그러하였다.